

한라일보

사랑으로 지은 집
사랑으로 가득한 집
부영 사랑으로

漢字 日報 제10524호

제주의 대표 신문 ihalla.com

기사제보 750-2200 | 구독 750-2314 | 광고 750-2828 | 2026년 1월 20일 화요일(음력 12월 2일)

제주 수소트램 계획 변수 등장

국토부 19일 노면전차 사업 기준 가이드라인 공개
과도한 재정 지출 차단… “총사업비 1km당 350억 이하”
제주도는 409억 계획… “강제성 없고 이미 지침 충족”

제주특별자치도의 수소트램 도입 계획에 새로운 변수가 등장했다. 정부가 재정 건전성을 이유로 허용하는 총사업비 범위 등을 정한 ‘트램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는데, 제주도가 계획한 수소트램 건설 사업비가 이 가이드라인에서 벗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노면전차(트램) 사업 추진 기준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19일 공개했다.

국토부의 가이드라인은 사업비 급증을 막고 사업 지역 요인 등을 지자체가 사전에 검토할 수 있도록 적정 수요와 총사업비 기준 등을 제시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트램 운행이 가능한 최소 수요는 하루 평균 4만명 이상으로 설정됐다. 이는 가이드라인보다 상위 규정인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및 기본계획 수립 지침’에 나온 적정 수요와 같은 것이다. 또 과도한 재정 지출을 막기 위해 트램 운영비는 연간 15억원을 넘지 말아야 하며, 트램 차량 구매 비용을 포함해 공사비 등 총사업비는 km당 350억원 이하여야 한다.

이 중 제주도의 수소트램 도입 계획과 충돌하는 건 총사업비 기준이다. 도가 추진 중인 수소트램 노선은 제주항, 동문시장, 제주공항, 연동사거리, 노형오거리, 1100로를 연결하는 12.91km 구간으로 총사업비는 5293억원으로 계획됐다.

수소트램 노선 1km를 구축하는데 투입하는 예산이 409억원이기 때문에 ‘km당 350억원 이하’로 설정한 가이드라인에서 벗어나고, 또 이를 지키려면 제주도의 총사업비는 4518억원 이하로 줄여야 한다는 뜻이 된다.

당초 도는 4370억원을 투입해 노형~연북로~도청~공항~옹담동~제주항을 연결하는 총 11.74km 구간에서 트램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BRT(간선급행버스체계) 노선과 중복된다는 이유 등으로 노선을 조정했다. 이는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용역 결과를 따를 것이다. 용역에선 제주 수소트램 노선의 경제성(B/C)은 0.79, 일 평균 예상 수요는 5만 3800명으로 정부 지침과 이번에 마련된 가이드라인(B/C 0.7 하루 평균 수요 4만명)을 충족할 것으로 분석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가이드라인과 어긋나면 어떤 조치가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강제성은 없지만, 정부는 각 지역의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을 승인할 때 자자체와 협의해야하는데 이때 가이드라인을 참고해 조율할 것”이라고 말했다.

제주도도 수소트램을 도입하려면 정부로부터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을 승인 받아야 하고, 이후 예비타당성(예타) 조사를 신청할 예정이기 때문에 해당 가이드라인을 마냥 무시할 순 없다고 했다. 예타를 통과해야 총사업비의 60%를 국가로부터 지원 받을 수 있으며 제주 수소트램 계획은 예타 통과와 국비 60% 지원을 전제로 짜였다.

다만 도는 현재 계획한 수소트램 총사업비가 가이드라인에서 벗어나도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을 승인 받는데 문제 없을 것이라고 했다. 도 관계자는 “가이드라인은 법적 강제성이 없을 뿐더러 제주도의 수소트램의 경제성과 예상 여객 수요도 가이드라인보다 상위 규정인 지침을 여유롭게 충족하고 있어 정부를 충분히 설득할 수 있다”며 “또 예타를 통과하면 20% 범위 내에서 총사업비를 변경할 수 있기 때문에 절차적으로도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제주 전입 청년 최대 20만원 ‘전입축하장려금’ 받는다

제주로 전입한 청년들에게 최대 20만원의 전입축하장려금이 지원된다. 제주도는 청년의 제주 정착을 지원하는 ‘2026년 탐라청년출발페어’(청년 전입 축하장려금) 사업’을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전입 청년의 부담을 줄이고 도내 청년 생활인구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사업은 크게 일반형과 U형으로 구분해 지원한다. 일반형은 과거 제주에 주민등록 이력이 없는 청년이 타 시도에서 전입한

경우이고 U형은 과거 연속 5년 이상 제주에 주민등록을 뒀던 이력이 있는 청년이 다시 제주로 전입한 경우다. 일반형은 총 10만원(1차 5만원, 2차 5만원), U형은 총 20만원(1차 10만원, 2차 10만원)이 모바일 지역화폐인 ‘담나는전’ 형태로 지급한다.

오소병기자

제주경찰 피의자 검거율 ‘상승세’… 4면 / 제주 외국인 관광객 점유율 ‘주춤’… 6면

경우이고 U형은 과거 연속 5년 이상 제주에 주민등록을 뒀던 이력이 있는 청년이 다시 제주로 전입한 경우다. 일반형은 총 10만원(1차 5만원, 2차 5만원), U형은 총 20만원(1차 10만원, 2차 10만원)이 모바일 지역화폐인 ‘담나는전’ 형태로 지급한다.

오소병기자

2026 한라일보 신춘문예 시상식… 신인작가 ‘첫발’

시 이현정·시조 최광복·소설 이수연 수상 영예

2026 한라일보 신춘문예 시상식이 19일 한라일보 3층 회의실에서 열렸다. 새해 한라일보 신춘문예를 통해 작가로 첫발을 디딘 3명의 당선자는 저마다의 방식으로 글을 쓰며 세상과 소통하겠다는 포부를 전했다.

한라일보 신춘문예는 1989년 한라일보 창간 이래 37년간 이어지면서 해마다 한국 문단을 빛낸 신인들을 발굴해왔다. 시·시조·단편소설 3개 부문에서 모두 2193편의 작품이 모인 올해 신춘문예에선 이현정(경기 고양시)의 시 ‘공간으로 새 말하기’, 최광복(경북 경주시)의 시조 ‘윈드 램프’, 이수연(경기 용인시)의 소설 ‘오이지’가 당선작으로 결정됐다.

새로운 출발에 대한 축하와 응원을 받은 신인 작가들은 설렘을 안고 시상식 단상에 올라 수상 소감을 전했다.

이현정 시인은 “시를 쓰거나 시상을 만나는 일은 저에게 새로운 장면을 살 수 있는 시간이라는 생

각이 든다. 저는 그런 시에게 참고 맙다”며 “이번 수상을 계기로 앞으로 새롭게 만나게 될 장면을 보다 농밀하게 쓰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가을 제주에 왔을 때 마주한 ‘비자립’에서의 신비로운 향기와 파도가 많이 치던 날의 ‘청귤 물’의 이미지가 계속 마음속에 떠돌고 있었는데, 한라일보 신춘문예 수상이라는 문장으로 완성됐던 것 같다. 저는 앞으로 제주에 자주 오고 싶다”며 “당선 소식을 들었을 때 그 순간이 제게 영원이 됐다. 모든 것에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최광복 시조시인은 “먼저 저의 부족한 작품을 선정해 주신 한라일보와 심사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 열여주신 길을 조심스럽게 한 발 한 발 내디디면서 누가 되지 않도록 스스로 잘 살피도록 하겠다”며 “앞으로 제 안의 울림에도 더 귀를 기울이고 아울러 시조 안에서 세상의 말을 한 눈금씩 받아 심도록 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김한숙 한라일보 대표이사는 인사말을 통해 “한라일보는 30여년 동안 신인 작가들의 등용문 역할을 하고 있고 작가들이 세상과 마주하는 그 순간부터 그 여정을 함께하고 있다”며 “수상하신 세 분에게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심사위원에게도 고마운 말씀을 전한다”고 했다.

박소정기자 cosorong@ihalla.com

신혼부부·자녀출산가구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지원대상 도내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
또는 자녀 출산 가정

신청기간 2026. 1. 19.(월) ~ 2026. 2. 27.(금)

지원내용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1.5%
(최대 150만원) 지원

※ 우선순위가정은 대출이자 2% (최대 190만원) 지원

신청방법

신청인 : 본인 또는 배우자

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 사무소
동 주민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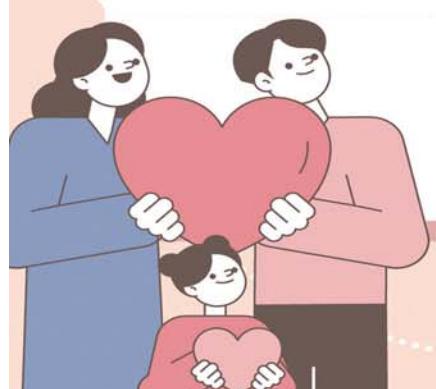
신청방법 : 방문 혹은 온라인 접수 (제주도청 홈페이지)

신청문의 : 710-4254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1.5%

(최대 150만원) 지원

※ 우선순위가정은 대출이자 2% (최대 190만원) 지원



신혼부부 등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복권기금을 재원으로 운영됩니다.

